NBA무대 요동…레이커스, 부루클린 우승 후보 급부상

미국프로농구(NBA) 무대가 요동치고 있다. 거물급 선수들의 대이동으로, 다음 시즌 누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지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됐다.

1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자유계약 선수(FA) 최대어 중 한 명이던 케빈 듀란트가 4년 1억4,200만 달러의 맥스 계약을 성사시키며 브루클린 네츠에 둥지를 틀었다.

브루클린은 아킬레스건 파열 중상으로 다음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듀란트에 과감한 투자를 했다. 그만큼 듀란트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사실 듀란트의 이동은 어느정도 예정돼 있었다. 원소속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듀란트와 함께 프랜차이즈 스타 클레이 탐슨이 FA로 풀렸다. 골든스테이트가 탐슨과 최고 계약을 할 예정인 가운데, 듀란트까지 잡으려면 엄청난 사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듀란트는 시즌 내내 이번 FA 계약에서는 돈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팀을 떠날 수 있음을 암시했었다.

듀란트가 브루클린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카이리 어빙이다. 보스턴 셀틱스에서 FA 자격을 얻은 어빙은 듀란트 계약 하루 전 브루클린과 1억4,100만 달러의 맥스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 듀란트, 리그 최고의 가드 어빙의 만남으로 브루클린은 단숨에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리그 수준급 센터로 인정받는 디안드레 조던도 브루클린에 합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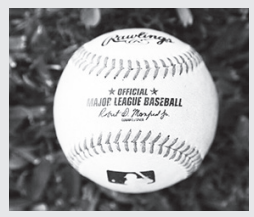
하지만 더 강력한 슈퍼팀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주인공은 LA레이커스이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했지만, 재미를 못본 레이커스는 NBA 최고의 파워포워드 앤서니 데이비스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부터 트레이드 해왔다.

르브론과 데이비스의 만남만으로도 충분히 서부 우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레이커스는 또 한 명의 슈퍼스타를 노린다. 바로 토론토 랩터스의 NBA 첫 우승을 이끈 카와이 레너드다. 만약, 최고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레너드까지 레이커스에 합류한다면 어느 팀도 쉽게 이기기 힘든 라인업이 꾸려질 수 있다.

또 다른 복병도 있다. 바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이다. 필라델피아는 1일 보스턴에서 FA로 풀린 센터 알 호포드를 4년 1억900만 달러에 붙잡았다.

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FA 자격을 얻은 포워드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일찌감치 5년 1억8000만 달러에 계약을 해 벤 시몬스-해리스-호포드-조엘 엠비드의 올스타급 라인업을 꾸릴 수 있게 됐다.

MLB '또 월 역대 최다 홈런' 공인구 논란



메이저리그가 두 달 연속 월간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2일 'OSEN'에 따르면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전날 지난 6월 한 달 동안 메이저리그 역대 월간 최다 1142홈런이 터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1135홈런으로 월간 최다 기록을 세운 지 한 달 만에 기록이 또 바뀌었다.

ESPN에 따르면 역대 월간 최다 홈런 1~6위 기록 중 5가지가 최근 3년 간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8월(1,119개), 2017년 6월(1,101개), 2000년 5월(1,069개), 2017년 5월(1,060개) 순. 2000년 5월은 암암리에 약물이 퍼진 시대였다.

그런데 올해는 약물 시대보다 많은 홈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까지 시즌 1255경기에서 총 3421홈런이 나왔다. 경기당 평균 2.73개.

지난해 6월까지 경기당 평균 홈런 2.28개보다 19% 증가한 수치. 뉴욕 양키스가 31경기 연속 팀 홈런 기록도 세웠다.

지금의 페이스라면 시즌을 마쳤을 때 6,624홈런으로 지난해(5,585개)는 물론 2017년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6,105개) 기록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그 타율이 2할5푼1리로 낮은 가운데 홈런은 어느 때보다 많이 터지고 있다.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특성, 발사 각도에 초점을 맞춘 뜬 공 혁명 영향도 있지만 현장에선 '공인구' 때문으로 확신하고 있다.

반발력이 좋은 공인구 영향으로 빗맞은 타구도 쉽게 넘어간다. 조 매든 시카고 컵스 감독은 "외계에서나 볼 법한 야구"라고 비꼬았다.

지난 2017년부터 투수들의 불만이 있었다. 데이비드 프라이스(보스턴)는 "공인구가 조작됐다. 100%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스틴 벌랜더(휴스턴) 등 스타 투수들이 여러 차례 공인구 문제를 제기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선 조작 의혹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

언론도 공인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발력이 커 홈런이 되지 않을 타구가 담장을 넘어간다는 뜻이다.

최근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롭 맨프레드는 공인구의 제작과정에서 공의 핵심 부분인 '필(pill)'이 정확한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음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다.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
IRS Special Enrollment Exam

장홍범 교수 CPA, EA
현, 미주 공인세무사 협회 회장
C & C Group Inc. 공동 대표
회계학 학사
세법학 석사
회계학 박사 과정

LA 지역 강의
장소: 한국 교육원 204호실
68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무료 공개 설명회
◆ 7월 19일 (금) 저녁 7시
정규강의 (8주간)
◆ 저녁반: 매주 수, 금 6시반~9시 (7월 24일 수 첫수업)

OC 지역 강의
장소: 시민권자 협회
9636 Garden Grove Blvd. #17
Garden Grove, CA 92844
(아리랑 마켓 몰내 미미 안경원 2층)
무료 공개 설명회
◆ 저녁반설명회: 7월 18일 (목) 저녁 7시
◆ 주말반설명회: 7월 20일 (토) 오후 2시
정규강의 (7주간)
◆ 주중저녁반: 매주 화 목 저녁 7시~10시 (7월 23일 화 첫수업)
◆ 주말반: 매주 토요일 1시반~7시 (7월 27일 첫 수업)

오전반
장소: SH Tax Service
6281 BEACH BLVD
SUITE # 245
Buena Park, CA 90621
무료 공개 설명회
◆ 7월 19일 (금) 오전 10시
정규강의 (7주간)
◆ 오전반: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12시반 (7월 22일 월 첫수업)

* IRS에서 발급하는 연방 자격증
* 납세대리 업무가 가능한 3대 자격증 중의 하나 (EA, CPA, Attorney)
* 세법 전문가 자격증
* 4지선다형 문제

평생 무료 재수강 ●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하나에 등록하고도 LA와 OC 전수업 중복 수업 가능

"학력, 전공,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2달이면 합격
100% 합격 보장

▲ 세무사 시험 안내서

▲ LA강의 모습

▲ 세무사 시험 준비 교재 (95% 이상 적중 교재)

세무회계 사무실 개업에 필요한 실무연습
www.eatax.net 온라인으로 실무연습 가능
개인 세금보고서 시나리오 30개,
법인 세금보고 시나리오 10개로 직접 세금보고 업무연습

수강 신청 및 시험 상담
714-393-2238
시험 정보 및 동영상 강의
www.eatax.net
www.eatax.com

트럼프 세제 개혁을 반영한 신교재로 강의 - 7월부터 개정세법이 시험에 출제